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신 나 리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신 나 리

# 인 준 서

신나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7월

심사위원장 ..... 김미림 ..... (인)

심사위원 ..... 서수연 ..... (인)

심사위원 ..... 이정윤 .....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각 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둘 다 낮은 의미결여형, 의미추구 수준은 높지만 의미발견 수준은 낮은 의미추구형,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중간인 의미과도기형,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높은 의미실현형인 네 개의 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각 프로파일에 속한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잠재프로파일 간 진로스트레스 수준과 진로성숙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미추구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보였고, 의미실현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의미실현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의미추구형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수준이 진로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삶의 의미, 의미추구, 의미발견, 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석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II. 이론적 배경 .....	9
1. 삶의 의미 .....	9
1) 삶의 의미의 개념과 특징 .....	9
2) 삶의 의미 하위차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	11
2. 진로스트레스 .....	12
1) 진로스트레스의 개념과 특징 .....	12
2) 삶의 의미와 진로스트레스 .....	14
3. 진로성숙도 .....	15
1)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특징 .....	15
2) 삶의 의미와 진로성숙도 .....	17
III. 연구문제 및 가설 .....	19
1. 연구모형 .....	19
2. 연구문제 및 가설 .....	20
IV. 연구방법 .....	21
1. 연구대상 .....	21
2. 측정도구 .....	21

1) 삶의 의미 척도 .....	21
2) 진로스트레스 척도 .....	22
3) 진로성숙도 척도 .....	23
4) 인구통계학적 변인 .....	24
3. 분석방법 .....	25
<b>V. 연구결과 .....</b>	<b>27</b>
1. 연구 대상자 특성 .....	27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9
3. 잠재프로파일 분류 .....	32
4. 잠재프로파일 간 차이 .....	34
<b>VI. 논의 .....</b>	<b>43</b>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삶의 의미 척도 문항구성 .....	22
<표 2> 진로스트레스 척도 문항구성 .....	23
<표 3> 진로성숙 척도 문항구성 .....	24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	28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29
<표 6>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	31
<표 7>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모형 적합도 비교 .....	34
<표 8>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사후확률 .....	34
<표 9>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의미추구, 의미발견 평균 차이 검정 .....	36
<표 10>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평균 차이 검정 .....	39
<표 11> 삶의 의미 잠재집단별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특성 비교표 .....	42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19
<그림 2>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 그래프 .....	37
<그림 3>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스트레스의 차이 .....	40
<그림 4>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속도의 차이 .....	4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는 안녕감(well-being)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Ryff, 1989), 삶의 의미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연관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삶에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을 즐기는 태도, 높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등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관련된다(Debats et al., 1995).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외부 저항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는 위기 상황에서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Frankl, 1959). 삶의 의미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며,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Baumeister & Vohs, 2002).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인간에게 있어 삶의 의미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조은혜 외, 2012).

이러한 삶의 의미는 단순한 심리적 개념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진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Dik & Steger, 2008). 이는 삶의 의미가 개인이 자신의 실존 속에서 질서와 일관성을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Wong & Fry, 1998).

진로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

를 이해해 가는 삶의 의미와 연결된 실존적 과정이다(김소연, 정희숙, 2015). 이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그러기에 진로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영인 외, 2008). 대학생 시기는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Erikson, 1968),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직업적 관심과 흥미 등을 바탕으로 진로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Super, 1980). 특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결정을 준비해야 하므로, 대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이형국,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로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삶의 의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의미가 대학생들이 직업 세계로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삶의 의미는 개인이 진로 탐색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진로스트레스(career stress)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불안, 낮은 자기 효능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현림 외, 2008). 특히, 삶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진로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며(박은주, 금명자, 2012), 반대로 삶의 의미를 강하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강인혜, 유금란, 2020).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또한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uper, 1980). 진로성숙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

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심은숙, 2003). 이러한 진로성숙도에 삶의 의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용준, 이종연, 2017; 박은주, 금명자, 2012; 정미란, 2004; 조은혜 외, 2012; 황윤미, 1992), 특히 삶의 의미를 강하게 인식하는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의미가운데서도 의미발견 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성숙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이나경, 안권순, 2015).

이와 같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그 밖의 다른 진로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우선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권대훈, 2017; 장진이, 이지연, 2014), 삶의 의미는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긍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미진, 김봉환, 2021), 정서인식명확성이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이나경, 안권순, 2015).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지며(이수정, 2015), 진로장벽은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강인혜, 유금란, 2020; 박은주, 금명자,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진로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은선, 박지아, 2013). 진로결정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단순히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삶의 의미의 하위요인에 따른 개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강인혜, 유금란, 2020; 이나경, 안권순, 2015). 삶의 의미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와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이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구성된다(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이며, 의미발견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나누어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의 연관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의미발견은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Ryff, 1989; 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는 공포, 우울, 슬픔, 신경증 성향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Steger et al.,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심리적 안녕감과 연결될 수 있으며(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가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Davis et al., 2000), 오히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Davis & Nolen-Hoeksema, 2001). 국내 연구에서도 의미발견이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여,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유성경, 김유진, 2015; 정주리, 이기학, 2007). 이를 통해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반대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더해 한 요인의 수준은 높지만 다른 요인은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은 진로 관련 변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미진과 김봉환(2021)은 의미추구가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을 촉진하며, 1)의미존재는 사회적응과 관련이 있

---

1) 오미진,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29권 제3호, 2021, p183.

다고 밝혔다. 또한, 황성원(2017)은 의미추구가 진로동기를 부분 매개하고, 의미발견은 진로준비행동을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조합에 따른 프로파일을 구분한 연구도 있다. 양준영과 이보라(2020)는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수준에 따라 대학생을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진로관여행동과 진로장벽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가 하위차원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진로 행동 및 심리적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활용하여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대학생들이 어떠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들 집단 간 진로 관련 변인(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삶의 의미 관련 연구는 변인 중심 위주로 이루어졌다.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은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변인의 기능을 알 수 있지만, 변인의 조합에 따른 개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김경희, 이희경, 2013; 정미연, 2013; 정미영, 2009; 정주리, 이기학, 2007; 조은향, 2009; 허지연, 손은정 2009),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탐색하고자 하였다(von Eye et al., 2006).

대표적인 사람 중심 접근법으로는 군집분석과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있다. Dezutter 등(2014)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수준에 따른 집단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

서 높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의 군집과 낮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의 군집이 가장 적응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특히 낮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 집단이 자존감과 웰빙 수준이 높고, 우울이나 불안, 규칙 위반 행동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양준영과 이보라(2020)가 군집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삶의 의미 발달 유형별 진로관여행동과 진로장벽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높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인 군집이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진로장벽 수준이 제일 낮았다. 또한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미추구에 머물지 말고 의미발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집분석은 객관적인 통계 기준이 아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며, 사용 가능한 척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이덕희 외, 2020에서 재인용; Vermunt & Magidson, 2002). 또한, 군집분석에서는 군집화할 때 개인이 하나의 집단에만 속하도록 제시된다(민여준, 2015).

이를 보완하여 적용된 통계방법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이다. LPA는 기존 군집분석과 달리 통계적 기준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여러 척도로 다양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Vermunt & Magidson, 2002), 변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으로서, 개인의 증상 수준 및 심각도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덕희 외, 2020에서 재인용; Rosellini et al., 2014). 그리고 LPA에서는 개인을 하나의 집단에만 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 잠재집단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을 제시한다(민여준, 2015). 변인 중심 기법에서는 변인과 변인 관계가 모집단 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집단 프로그램에서 모두 똑같은 처치가 이루어

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중심 기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집단별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줄 것이며(von Eye et al., 2006), 집단별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hman et al., 2018). 의미추구가 부재한 집단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을 탐색하게 하고, 의미발견이 부재한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과 현재 추구하는 가치가 부합하는지 살펴보게 함으로써, 의미발견에 이를 수 있게 도와준다.

이승화와 민경화(2015)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의 조합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중년기 위기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밝혔다. 그 결과 중년기 위기감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높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과 낮은 의미추구-높은 의미발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의미발견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발견 수준이 비슷할 때 의미추구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미추구 수준이 중년기 안녕감은 물론 심리적 성숙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 의미발견의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그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가 대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대학생의 진로 상담 및 교육에서 삶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진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조합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의미

#### 1) 삶의 의미의 개념과 특징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다. Frankl(1959)은 삶의 의미를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 라고 정의하며, 이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았다. Crumbaugh와 Maholick(1964)은 개인이 자신의 주요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신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으로 해석하였다. Wong과 Fry(1998)는 개인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Allport(1961)는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상위 의미 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Battista와 Almond(1973), Reker와 Wong(1988)은 삶의 일관성과 연관된 개념으로 보았으며,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McIntosh, Silver와 Wortman(1993)은 자기 초월적 인식과 숙고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Klinger(1998), Ryff와 Singer(1998)는 개인이 삶을 이루어 나가는 동기(의도, 이유, 목적)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Baumeister(1991)는 사람의 행동, 동기, 감정 등을 결정하는 지향 시스템으로서, 사물·사건·관계를 연결하는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박선영과 권석만(2012)은 삶의 의미를 단순히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중요하다’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구성된 실체로서, 타인·환경·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을 포

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삶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Chamberlain & Zika, 1988). 이는 삶의 의미가 다양한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희(2004)와 안영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hamberlain과 Zika(1988)는 삶의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성실성과 개방성, 외향성,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신뢰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삶의 의미가 낮은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 고독, 신경증 성향,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삶의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정주리, 이기학, 2007),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을 완화하고 희망을 유지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성, 이희경, 2016). 고주희와 송현주(2015)의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높게 인식할수록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촉진됨을 보고하였다.

진로 발달 과정에서 삶의 의미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감 및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원두리 외, 2005; Steger et al., 2006). 특히, 의미발견은 단순히 주관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진로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ri et al., 2022).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며,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2) 삶의 의미 하위차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는 기존의 삶의 의미의 주요 정의들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 구성 개념으로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도출하였다.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나 지향이며, 의미발견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뜻한다(Steger et al., 2006). 즉, 삶의 의미는 개인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일깨우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적 측면에서도,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삶의 의미를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공허하며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조명현, 2021).

그래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의미추구)과 분명한 삶의 목적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의미발견)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관련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계를 지닌다. 원두리 등(2005)과 정주리(2007)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어서 의미추구 동기가 높을수록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며,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역시 의미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진로 관련 변인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두 가지 하위차원에 따라 상이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의 의미발견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미추구는 부적이지는 않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정, 2015). 오미진과 김봉환(2021)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 하위

차원 중 의미추구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미존재는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성원(2017)은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미추구는 진로동기를 부분 매개하고, 의미발견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서로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요인으로서 진로 발달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진로 발달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낸 것에 주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두 변인 간의 조합에 따른 삶의 의미의 프로파일별 진로 발달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진로스트레스

### 1) 진로스트레스의 개념과 특징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을 의미한다(서유진, 2007; 정유정, 2017). 이는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 속에서 신체적·심리적 균형이 무너지고, 불안과 긴장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관적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강문진, 2017).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취업압박, 정보부족, 진로모호, 외적갈등, 내적갈등인 5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취업압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및 걱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정보부족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진로모호는 미래에 대한 직업의 불확실성과 개인이 진로를 선택했으나 적성과 불일치로 야기되는 스트레스이다. 그리고 외적갈등은 진로에 대하여 부모 및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내적갈등은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및 곤란을 의미한다(박희락,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개인일수록 심리적 건강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상승하며(박채연, 2019),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김송화, 2011).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이수진 외, 2021),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진로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진로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선희, 박현주, 2009). 이현림 등(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진로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경제적 독립을 경험하며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심리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1). 더군다나,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황과 취업 시장의 악화가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봉수, 2020).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취업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보다 대학 입학 자체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강문진, 2017).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

정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이현림 외, 2008). 또한,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 대졸 신입 채용 감소, 노동 시장의 빠른 변화, 스펙 경쟁의 과열, 그리고 등록금 부담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진로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학생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혼란이나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삶의 의미와 진로스트레스

조명현(2021)에 의하면,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삶의 의미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하여(Frankl, 1963),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며,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삶의 의미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Lazarus & DeLongis, 1983), 정서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Davis et al., 2000; Kobasa, 1979).

학교장면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고(김택호, 2004; Kiang & Witkow, 2015), 대학생들도 삶의 의미의 존재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적응도 더 잘 하였다(Trevisan et al., 2017).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고민은 현재에 주어진 과업을 잘 해 나가고 미래의 나를 설계하는데 적응적인 자원

이 된다. Boulter(2002)는 대학생들에게서 자아개념(self-concept)이 학업에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대학교 1학년생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히 잘 인지할수록 학업 적응이 높았다. 즉,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는 경우 자신의 현재의 능력과 한계점 등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어진 과업에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조명현, 2021). 특히 대학생의 학업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주어진 공부를 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진로와 같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김연중, 손은령, 2012; 조성연, 이선순, 2006),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진춘화, 장준호, 2019).

종합해보면, 삶의 의미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전적인 사건이 닥치더라도 개인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중심을 잘 잡도록 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조명현, 2021).

### 3. 진로성숙도

#### 1)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특징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 조태영과 이민순(2009)은 진로성숙도가 삶의 방향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 선택 과정의 핵심 요소이라고 보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Super(1955)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수준으로, 직업적 발달 과업을 수행할 준비 정도로 설명하였다. 또한,

Crites(1973)는 진로성숙도를 내용과 과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이기학(1997)은 이를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 준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과 적응, 수행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나타내며,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목적성은 진로 선택을 통해 개인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준비성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도, 계획, 준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관한 관심과 참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진로정보수집, 의사결정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립성은 진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혹은 타인에게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요소이다(이기학, 한종철,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진로 계획과 선택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대학 생활 적응력, 학업 적응력, 대인 관계 및 사회 적응 능력이 우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이지선, 2010). 또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강승희, 2010), 현실적인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판단 능력이 향상된다. 이기학(1997)은 진로성숙도가 자신의 선호와 열정을 고려하여 진로를 설정하도록 돕고, 성취감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반면,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사회적인 소외감을 경험하며,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장광원, 장성화, 2012). 미성숙한 진로태도는 의지와 상관없는 진로로 이어져 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진 개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고, 불행감이 높은 특징이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고 미래계획과 같은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이제경, 김동일, 2004).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진로 발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삶의 의미와 진로성숙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윤미, 1992). 장문희(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점수가 높았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을수록 비자주성 점수가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지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 수준, 특히 삶의 목적 달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송은정, 1999), 진로 발달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은주, 금명자, 2012; 정미란,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미래 진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나경, 안권순, 2016; 조은혜 외, 2012). 또한, 삶의 의미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진로성숙도 및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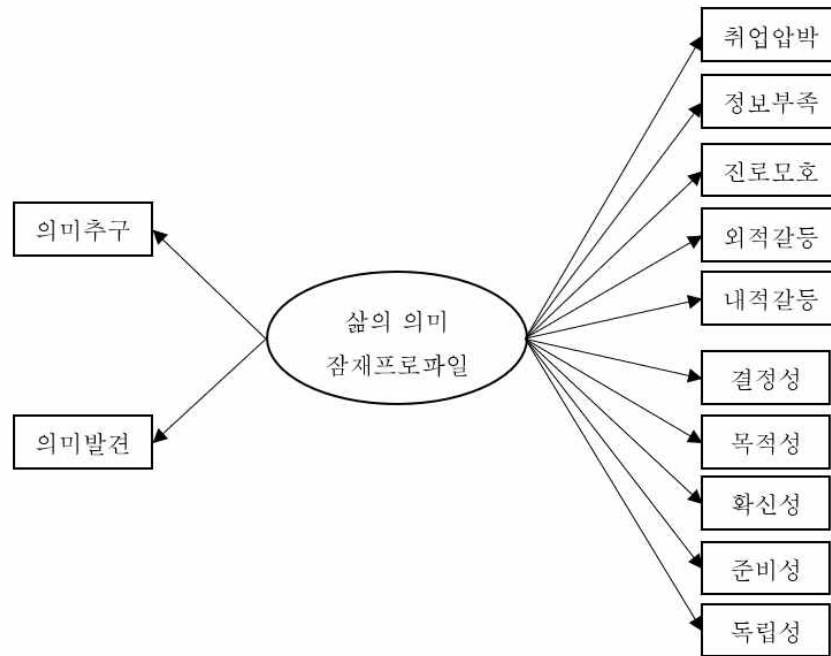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은선, 박지아,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의미를 높이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의미추구, 의미발견)의 조합에 따른 집단 간에 진로 관련 변인(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도)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가 대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진로 상담 및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가설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조합에 따라 개인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탐색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잠재집단 간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삶의 의미가 진로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도출되며, 각 프로파일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삶의 의미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가설 3-1. 삶의 의미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삶의 의미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진로성숙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남녀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SSWUIRB-2025-024)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발적인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고지하였다. 전문 리서치 업체(마켓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삶의 의미와 진로스트레스, 삶의 의미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최소 175명에서 최대 459명이며, 평균은 313명(권용준, 이종연, 2017; 김영희, 고태순, 2019; 김혜영, 김민정, 2024; 조명현, 2021; 조은혜 외, 2012)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평균 연구대상자 수인 310명 정도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나 중도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대략 10-15%인 점(이윤석 외, 2008)을 고려하여, 최대 350명을 표본 수로 산출하여 진행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삶의 의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et al.(2006)이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헌과 권성중(2005)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추구, 의미발견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의미추구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함을 의미하며, 의미발견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삶 속에서 의미를 많이 발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Steger et al.(2006)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의미추구 .87, 의미발견 .86으로 보고되었으며,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두 하위요인 모두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의미추구 .87, 의미발견 .83, 전체 .87로 나타났다.

<표 1> 삶의 의미 척도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s $\alpha$
의미추구	2, 3, 7, 8, 10	5	.87
의미발견	1, 4, 5, 6, 9*	5	.83
전체		10	.87

\*은 역채점 문항

## 2) 진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희락(2009)이 개발한 진로 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모호, 취업압박, 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의 5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희락(2009)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4이며,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진로스트레스 척도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s $\alpha$
진로모호	1, 4, 7, 10, 12	5	.90
취업압박	2, 5, 8, 11, 13	5	.85
정보부족	17, 19, 21, 23, 25	5	.90
외적갈등	3, 6, 9, 14, 15	5	.85
내적갈등	16, 18, 20, 22, 24	5	.74
전체		25	.94

### 3)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정성(10문항), 목적성(8문항), 확신성(10문항), 준비성(10문항), 독립성(9문항)으로 총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7이며,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진로성숙 척도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s $\alpha$
결정성	1, 2*, 3, 4*, 5*, 6*, 7, 8, 9*, 10*	10	.81
목적성	11*, 12*, 13*, 14*, 15*, 16*, 17*, 18*	8	.83
확신성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0	.83
준비성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79
독립성	39*, 40*, 41*, 42, 43*, 44, 45, 46, 47*	9	.82
전체		47	.87

\*는 역채점 문항

#### 4)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설문을 포함하였다. 성별, 나이, 전공계열, 학년, 종교, 직업 선택 요인을 조사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Mplus 8.8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Cronbach' 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의미추구, 의미발견)을 기준으로 개인이 어떤 프로파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Mplus 8.8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특정 수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정했을 때 실제 관측치로부터 이론적 구조와의 유사 정도나 차이 정도를 의미하는 모형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s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들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된다(Muthén & Muthén, 2006).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잠재계층 수가 k인 모형과 k-1인 모형을 비교하는 LRT(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가 사용되는데, 두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k-1 모형은 기각되고, k 모형이 지지된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수를 늘려가면서 더 이상 모형이 개선되지 않을 때 더 적은 수의 프로파일을 가정하고도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이 되므로 간명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적은 수의 프로파일을 가정한 모형을 선택하였다(이주영, 2010). 그리고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Muthé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Entropy 값을 산출하였고, 이때 다른 수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정한 모형들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적합한 모형비교를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해석가능성, 명확성, 프로파일 크기, 이론적 및 과학적 연관성 등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Malmberg et al., 2012).

넷째, 프로파일 간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 대상자 350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여성이 196명(56.0%), 남성이 154명(44.0%)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연령은 19~33세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 23세 (SD=2.59)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응답자의 학년을 보면, 4학년 130명 (37.1%)이 가장 많았고, 3학년 80명(22.9%), 1학년 66명(18.9%), 2학년 62명(17.7%), 휴학생 1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공학계열 93명(26.6%), 인문계열 73명(20.9%), 사회과학계열 50명(14.3%), 경상계열 31명(8.9%), 자연계열 31명(8.9%), 의학계열 29명(8.3%), 예체능계열 21명(6.0%), 교육계열 11명(3.1%), 법학계열 7명(2.0%), 기타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248명(70.9%)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59명(16.9%), 불교 26명(7.4%), 가톨릭 17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요인으로는 적성과 흥미 111명(31.7%), 소득 106명(30.3%), 안정성 79명(22.6%), 보람 및 자아성취 23명(6.6%), 직업발전성 및 장래성 15명(4.3%), 가치관 9명(2.6%), 사회적 기대 6명(1.7%), 기타 1명(0.3%)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4	44.0
	여성	196	56.0
연령		만 19~33 (23±2.59)	
학년	1학년	66	18.9
	2학년	62	17.7
	3학년	80	22.9
	4학년	130	37.1
	휴학생	12	3.4
전공	인문계열	73	20.9
	경상계열	31	8.9
	법학계열	7	2.0
	사회과학계열	50	14.3
	교육계열	11	3.1
	공학계열	93	26.6
	자연계열	31	8.9
	의학계열	29	8.3
	예체능계열	21	6.0
	기타	4	1.1
종교	기독교	59	16.9
	가톨릭	17	4.9
	불교	26	7.4
	무교	248	70.9
직업 선택 요인	소득	106	30.3
	안정성	79	22.6
	적성과 흥미	111	31.7
	사회적 기대	6	1.7
	보람 및 자아성취	23	6.6
직업발전성 및 장래성	직업발전성 및 장래성	15	4.3
	가치관	9	2.6
	기타	1	0.3
계		350	100.0

##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먼저 요인의 기술통계치를 보면 삶의 의미 관련 문항들은 Likert 7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의미추구는 평균 5.13점, 의미발견은 평균 4.52점, 그리고 삶의 의미 전체요인은 평균 4.82점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진로스트레스 전체요인은 평균 3.20점, 진로성숙도 전체요인은 평균 3.1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하위요인 평균은 표에 기술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7미만으로 모두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의미추구	5.13	1.01	-.57	.93
의미발견	4.52	1.14	-.20	.08
삶의 의미 (전체)	4.82	0.93	-.23	.17
진로모호	3.31	0.99	-.50	-.45
진로압박	3.79	0.83	-.87	.65
정보부족	3.25	0.97	-.36	-.29
외적갈등	2.65	0.92	.15	-.59
내적갈등	2.99	0.84	-.25	-.32
진로스트레스 (전체)	3.20	0.73	-.57	.16
결정성	3.05	0.68	.41	.00
목적성	2.89	0.71	.18	.12
확신성	2.83	0.66	.26	.51
준비성	3.56	0.54	-.32	.88
독립성	3.56	0.64	.51	-.42
진로성숙도 (전체)	3.18	0.39	.87	.74

또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면 <표 6>과 같다. 의미추구는 의미 발견과  $r=.496(p<.001)$ , 삶의 의미와  $r=.846(p<.001)$  등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과  $r=.148(p<.01)$ , 준비성과  $r=.494(p<.001)$ , 독립성과  $r=.191(p<.001)$ , 진로성숙도와는  $r=.273(p<.001)$  등으로 각각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목적성과 확산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의미발견은 삶의 의미와  $r=.883(p<.001)$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진로모호와  $r=-.545(p<.001)$ , 진로압박과  $r=-.255(p<.001)$ , 정보부족과  $r=-.435(p<.001)$ , 외적갈등과  $r=-.119(p<.05)$ , 내적갈등과  $r=-.189(p<.001)$ , 진로스트레스와는  $r=-.393(p<.001)$  등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과  $r=.520(p<.001)$ , 목적성과  $r=.129(p<.05)$ , 확산성과  $r=.506(p<.001)$ , 준비성과  $r=.255(p<.001)$ , 독립성과  $r=.191(p<.001)$ , 진로성숙도와  $r=.546(p<.001)$  등으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의미 전체요인은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진로모호와  $r=-.379(p<.001)$ , 정보부족과  $r=-.283(p<.001)$ , 진로스트레스와  $r=-.244(p<.001)$  등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진로압박, 외적갈등, 내적갈등과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과  $r=.399(p<.001)$ , 확산성과  $r=.354(p<.001)$ , 준비성과  $r=.424(p<.001)$ , 독립성과  $r=.221(p<.001)$ , 진로성숙도와는  $r=.482(p<.001)$  등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성과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의미추구	의미발견	삶의의미	진로모호	진로압박	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	진로스트레스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의미발견	.496 ***														
삶의의미	.846 ***	.883 ***	-												
진로모호	-.082	-.545 ***	-.379 ***	-											
진로압박	.101	-.255 ***	-.102	.572 ***	-										
정보부족	-.031	-.435 ***	-.283 ***	.742 ***	.621 ***	-									
외적갈등	-.039	-.119 *	-.094	.512 ***	.265 ***	.487 ***	-								
내적갈등	.056	-.189 ***	-.086	.632 ***	.453 ***	.644 ***	.632 ***	-							
진로스트레스	-.004	-.393 ***	-.244 ***	.869 ***	.716 ***	.875 ***	.722 ***	.831 ***	-						
결정성	.148 **	.520 ***	.399 ***	-.738 ***	-.333 ***	-.605 ***	-.368 ***	-.509 ***	-.643 ***	-					
목적성	-.049	.129 *	.052	-.422 ***	-.331 ***	-.357 ***	-.335 ***	-.417 ***	-.463 ***	.258 ***	-				
확신성	.080	.506 ***	.354 ***	-.653 ***	-.580 ***	-.662 ***	-.339 ***	-.444 ***	-.670 ***	.534 ***	.309 ***	-			
준비성	.494 ***	.255 ***	.424 ***	.034	.328 ***	.147 **	-.029	.176 **	.156 **	.110 *	-.246 ***	-.111 *	-		
독립성	.191 ***	.191 ***	.221 ***	-.346 ***	-.100	-.272 ***	-.484 ***	-.362 ***	-.392 ***	.289 ***	.408 ***	.279 ***	.171 **	-	
진로성숙	.273 ***	.546 ***	.482 ***	-.732 ***	-.366 ***	-.610 ***	-.518 ***	-.535 ***	-.694 ***	.760 ***	.568 ***	.702 ***	.273 ***	.692 ***	

\*  $p < .05$ , \*\*  $p < .01$ , \*\*\*  $p < .001$

### 3. 잠재프로파일 분류

삶의 의미의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실시하였으며, 적절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Mplus 8.8을 사용하였다. Muthén과 Muthén(2000), Nagin(2005)에 의하면,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거(criteria)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엔트로피(Entropy), 그리고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등을 활용하였다(Iwamoto et al., 2010). AIC와 BIC, SABIC 지수는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고, 분류의 질은 엔트로피(Entropy)로 평가하였는데, 엔트로피는 0에서 1.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운 높은 수치일수록 분류가 정확하다(Hix-Small et al., 2004). 그리고  $k$ (대립가설)와  $k-1$ (영가설)간의 통계검증을 통해 집단 결과를 비교하는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잠재프로파일을 하나씩 늘리면서 이전 잠재프로파일 수 모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아래 <표 7>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 등이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전의 잠재프로파일 수 모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VLMRT, LMR LRT)을 함께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1개에서 점차 증가시키며 이전 모형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4개까지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4개에서 5개로 늘렸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엔트로피 지수를 비교한 결과 4개 프로파일 모형에서 .80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분류의 명확성이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배정된 프로파일의 표본이 해당 프로파일에 소속될 확률값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평균 사후확률을 살펴보면, 프로파일1에 배정된 표본들이 해당 프로파일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 값의 평균이 .911이고, 이 때 프로파일3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 값의 평균은 .007로 나타났으며, 프로파일2와 프로파일4에는 소속 확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2에 배정된 표본들이 해당 프로파일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 값의 평균은 .758이며, 프로파일3에는 .003, 프로파일4에는 .004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파일3에 배정된 표본들은 해당 프로파일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 값의 평균이 .917로 가장 높았고, 프로파일4에 배정된 표본들이 해당 프로파일에 소속되어 있을 확률이 .862였다.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사후확률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모형 적합도 비교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Loglikelihood	-1006.06	-981.93	-968.46	-957.57
	AIC	2026.12	1983.86	1962.93	1947.15
	BIC	2053.13	2022.44	2013.08	2008.87
	SABIC	2030.92	1990.72	1971.84	1958.12
x <sup>2</sup> 차이검증 (p)	VLMRT	.021	.000	.003	.145
	LMR LRT	.025	.000	.004	.159
	BLRT	.000	.000	.000	.000
분류의 질	Entropy	.507	.719	.808	.735
분류율 (%)	프로파일1	47.1	4.9	4.9	3.1
	프로파일2	52.9	59.4	2.6	4.0
	프로파일3		35.7	56.6	46.6
	프로파일4			36.0	21.7
	프로파일5				24.6

<표 8>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사후확률

	실제 배정된 프로파일				총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프로파일1에 속할 확률	.911	.000	.089	.000	1
프로파일2에 속할 확률	.000	.758	.108	.134	1
프로파일3에 속할 확률	.007	.003	.917	.073	1
프로파일4에 속할 확률	.000	.004	.134	.862	1

#### 4. 잠재프로파일 간 차이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기반으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각 집단을 알파벳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 하위척도의 각 문항 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한 척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의미추구, 의미발견 평균 차이 검정표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평균 차이 검정에서 각 집단별로 의미추구( $F(3, 346)=330.68, p<.001$ ), 의미발견( $F(3, 346)=117.69, p<.001$ )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각 집단의 평균 옆에 제시된 알파벳 기호는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같은 알파벳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서로 다른 알파벳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ab는 각각 a, b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의미추구의 경우, 프로파일2와 프로파일4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프로파일3은 중간 수준, 프로파일1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의미발견의 경우, 프로파일4가 가장 높고, 프로파일3이 중간 수준, 그리고 프로파일1과 프로파일2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 차이 검정에서 효과크기는 집단 간 차이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효과크기는 Eta-squared ( $\eta^2$ )로 제시하였다. 전체 변동 중에서 집단 간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0.01은 작은 효과, 0.06은 중간 효과, 0.14 이상은 효과가 크다고 해석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미추구, 의미발견은 모두 0.5 이상으로 매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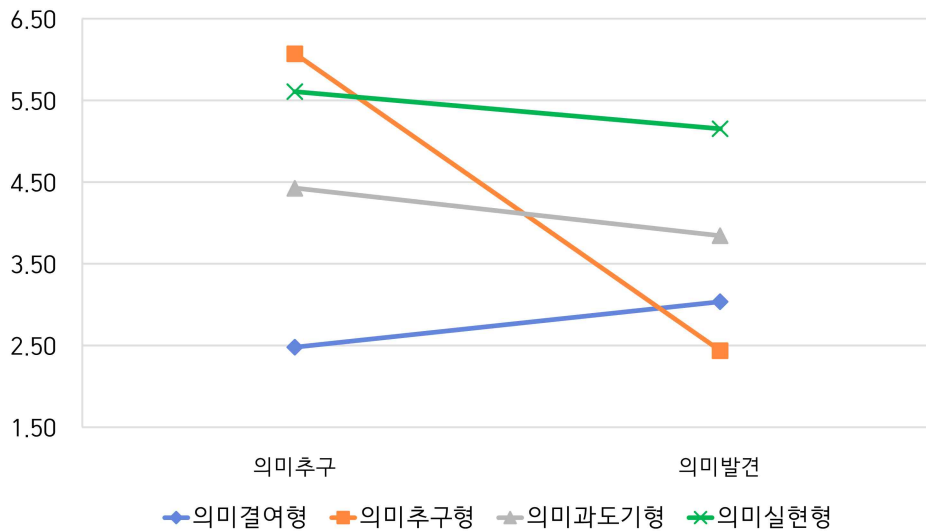
<표 9>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의미추구, 의미발견 평균 차이 검정

	프로파일1	프로파일2	프로파일3	프로파일4	효과크기 ( $\eta^2$ )	F (p)
의미추구	2.58±.60a	6.53±.35c	4.72±.51b	6.02±.52d	0.74	330.68***
의미발견	3.19±.71a	2.53±.80a	4.08±.83b	5.52±.79c	0.51	117.69***

\*\*\*  $p < .001$

Scheffé 사후검정결과 평균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날 경우 a<b<c<d 순으로 집단분류

<그림 2>를 통해 잠재프로파일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2개 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파일1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낮은 점수를 보여 ‘의미결여형’으로, 프로파일2는 의미추구가 제일 높지만 의미발견에서 제일 낮아서 ‘의미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여 ‘의미과도기형’으로, 프로파일4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의미실현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 그래프

그 다음, 잠재프로파일별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각 집단의 평균 옆에 제시된 알파벳 기호는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같은 알파벳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알파벳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ab는 각각 a, b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10>에 제시하였다.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모호는 잠재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346)=11.19, p<.001$ ), Scheffé 사후검정에서 의미추구형이 다른 프로파일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로압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3, 346)=2.04, p=.11$ ), Scheffé 사후검정에서 의미결여형보다 의미추구형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보부족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3, 346)=8.37, p<.001$ ), Scheffé 사후검정에서 의미추구형이 다른 프로파일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외적갈등과 내적갈등은 프로파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모호, 정보부족이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목적성을 제외하고 모두 잠재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정성( $F(3, 346)=17.56, p<.001$ )과 확신성( $F(3, 346)=11.44, p<.001$ )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의미추구형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준비성( $F(3, 346)=30.88, p<.001$ )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미결여형보다 다른 프로파일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독립성( $F(3, 346)=5.58, p<.01$ )의 경우도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어떤 프로파일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로성숙도 또한 프로파일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346)=22.95, p<.001$ ), 의미실현형이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효과크기는 전체 변동 중에서 집단 간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0.01은 작은 효과, 0.06은 중간 효과, 0.14 이상은 효과가 크다고 해석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 및 그 하위요인인 진로압박, 외적갈등은 효과크기가 작으며, 진로모호와 정보부족, 내적갈등은 중간 효과크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은 중간 효과크기이며, 준비성은 매우 큰 효과크기, 목적성과 독립성은 작은 효과크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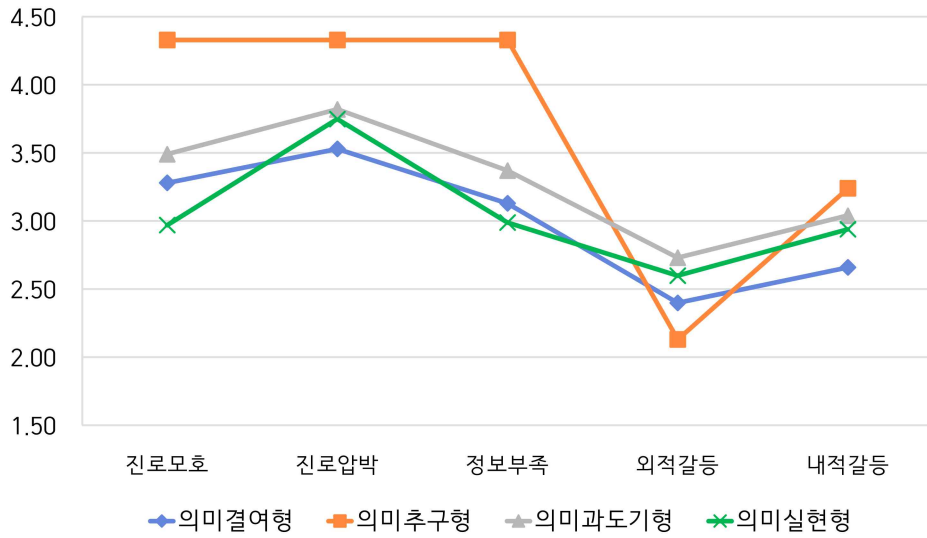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을 기준으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그림 3>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10>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평균 차이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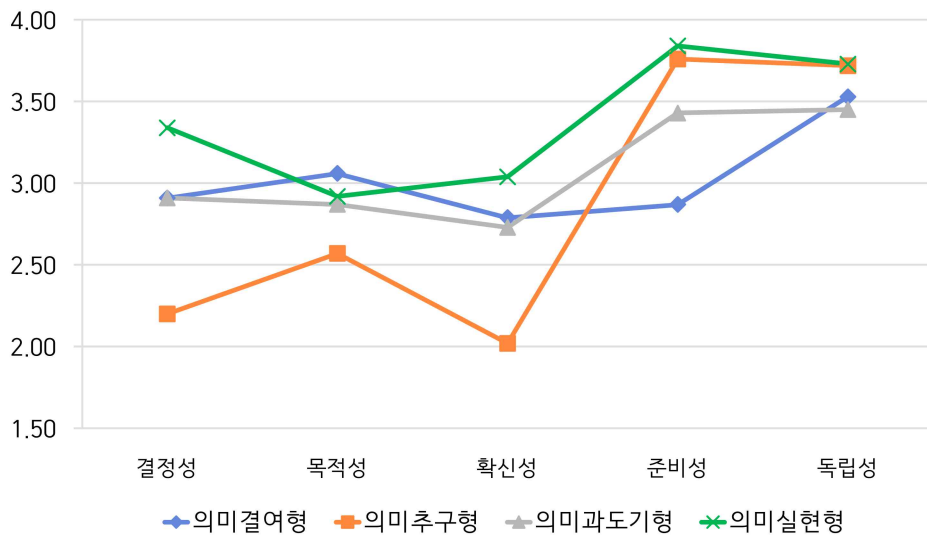
프로파일 특성	의미결여형	의미추구형	의미과도기형	의미실현형	효과크기 ( $\eta^2$ )	F (p)
진로모호	3.28±1.02a	4.33±.81b	3.49±.81a	2.97±1.13a	0.09	11.19 ***
진로압박	3.53±1.02a	4.33±.68b	3.82±.74ab	3.75±.94ab	0.02	2.04 (.11)
정보부족	3.13±.99a	4.33±.80b	3.37±.87a	2.99±1.04a	0.07	8.37 ***
외적갈등	2.40±.75	2.13±.71	2.73±.81	2.60±1.08	0.02	2.00 (.11)
내적갈등	2.66±.92	3.24±.52	3.04±.73	2.94±1.00	0.13	1.53 (.21)
진로 스트레스	3.00±.73a	3.68±.39b	3.29±.60ab	3.05±.89a	0.04	4.54 **
결정성	2.91±.92b	2.20±.57a	2.91±.58b	3.34±.69b	0.13	17.56 ***
목적성	3.06±.55	2.57±.61	2.87±.61	2.92±.87	0.01	1.07 (.36)
확신성	2.79±.81b	2.02±.80a	2.73±.54b	3.04±.71b	0.09	11.44 ***
준비성	2.87±.48a	3.76±.59b	3.43±.46b	3.84±.52b	0.21	30.88 ***
독립성	3.53±.75	3.72±.85	3.45±.56	3.73±.69	0.05	5.58 **
진로성숙도	3.02±.33a	2.85±.43a	3.08±.29a	3.39±.45b	0.12	22.95 ***

\*\*  $p < .01$ , \*\*\*  $p < .001$

Scheffé 사후검정결과 평균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날 경우 a<b<c<d 순으로 집단분류



<그림 3>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스트레스의 차이



<그림 4>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 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 관련 문항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요인으로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한 결과, 의미결여형, 의미추구형, 의미과도기형, 의미실현형 등 네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프로파일별로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진로모호와 정보부족은 의미추구형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로압박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의미결여형보다 의미추구형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외적갈등과 내적갈등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모호, 진로압박, 정보부족이 프로파일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설 3-1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확신성은 의미추구형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준비성은 의미결여형보다 다른 프로파일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독립성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어떤 프로파일 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서도 가설 3-2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11> 삶의 의미 잠재집단별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특성 비교표

프로파일 유형		삶의 의미 구성	진로스트레스 수준	진로성숙도 수준	심리적 특징 요약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향
의미결여형	낮은 의미추구 낮은 의미발견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도 부족하고 의미도 느끼지 못함	높음	낮음	무기력, 정체감 혼란, 진로 회피 경향	진로 탐색 동기 강화, 의미 발견 경험 제공, 정체감 탐색 강화
의미추구형	높은 의미추구 낮은 의미발견	삶의 의미를 갈망하지만 아직 찾지 못함	매우 높음	매우 낮음	혼란, 불안, 갈등, 존재적 긴장감	실존적 긴장 해소, 가치 명료화, 진로 상담 통한 방향성 제공
의미과도기형	중간 의미추구 중간 의미발견	의미에 대한 탐색과 인식이 중간 정도	중간	중간	모색 중인 상태, 진로결정에 불확실함	진로목표 구체화, 자기이해 심화, 상담적 지지 제공
의미실현형	높은 의미추구 높은 의미발견	의미를 찾고 있고 이를 일상에서 인식함	낮음	높음	자기주도성 높음, 긍정적 정체감, 진로 목표 명확	심화된 진로설계, 자기실현 중심 개입,

## VI.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네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에 속한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삶의 의미 하위차원은 각각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방향과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

우선, 의미추구는 진로스트레스 및 그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의미추구가 진로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의미발견은 진로스트레스와 그 하위요인인 진로모호, 진로압박, 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 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삶의 의미를 실제로 발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압박감,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l-Mahrouqi 등(2023)과 Hix-Small 등(200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요인인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통이 의미추구와는 정적 상관을, 의미발견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Aftab 등(201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요인인 신체적·정신적 웰빙이 의미추구와는 부적 상관을, 의미발견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 김경희, 이희경(2013)과 고영남(2021)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과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볼 때, 의미발견의 경우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의미추구는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추구와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Dezutter et al., 2014; Steger et al., 2008). 다시 말해, 일부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의미추구를 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의미에 대한 결핍 정도에 따라 의미추구와 정신건강 변인 간의 관계에서 상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요인의 영향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미추구는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요인인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진로 준비성 및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의미발견은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경험과 명확한 진로 태도 및 준비성 간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영석,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이 삶의 의미 및 그 하위요인인 의미추구, 의미발견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각각 진로스트레스,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는 진로성숙과 관련된 내적 동기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의미발견은 진로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연관성을, 진로성숙도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삶의 의미의 두 하위차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기능적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결과,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수준에 따라 네 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 1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낮은 ‘의미결여형’으로서, 삶

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Frankl(1963)은 이러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하며, 삶의 방향이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이나 우울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Marcia(1966)의 정체감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집단은 정체감 혼미 상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삶의 방향성이 부재하고 내적 동기가 결핍되어 있으며,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Erikson(1968)의 정체감 혼란 상태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조효진과 유성경(2022)은 대학생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 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변화에 따른 5개 집단을 확인하였고, 각 집단의 정신건강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중,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긍정정서가 낮고 부정정서는 높게 나타났다으며, 집단 중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안녕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2는 의미추구는 높지만 의미발견이 낮은 ‘의미추구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아직 명확히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은 삶에 대한 질문은 많지만 확신이 부족해 혼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Steger et al., 2008). Frankl(1959)의 이론에서는 이를 ‘의미를 향한 좌절’로 설명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미추구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조효진과 유성경(202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집단은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 유능성도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결정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렵고 자주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3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평균에 가장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 ‘의미과도기형’으로서, 의미 형성의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삶에 어느 정도 의미를 느끼고 있고 더 많은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중간 집단이 가장 일반적인 대학생 유형으로 보고되며(조효진, 유성경,

2022), 삶에 특별한 위기나 충만함은 없지만 점차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Steger et al., 2008). 정체감 발달 측면에서는 정체감 유예 상태와 비슷하며(Marcia, 1966), 삶의 의미 탐색과 확립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이후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집단 4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높은 ‘의미실현형’이다. 이 집단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이다. Steger 등(2011)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느낀다고 하였으며, Frankl(1963)은 삶의 의미를 가진 삶이 개인의 회복력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미실현형은 Marcia(1966)의 정체감 발달 유형에서 정체감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정 지은 정체감 성취 상태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 집단은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삶의 의미와 진로 목표를 잘 연결하고, 직업을 통해 개인적 만족을 느끼며, 사회적 기여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수준에 따라 네 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된 것은 삶의 의미의 두 하위차원 간 유의미한 심리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이 단일한 경로로 설명되기 어렵고, 개인에 따라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 진로 관련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개인의 의미 구성 방식과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의미 기반 상담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도출된 네 개의 잠재집단 간 진로스트

레스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모호, 진로압박, 정보부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의미추구형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추구형이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진로모호, 진로압박, 정보부족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특히 진로모호와 정보부족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의미추구형은 삶에 방향에 대한 탐색은 활발하나 뚜렷한 목적이나 확신이 부족하여 진로 선택에서 혼란과 불안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내적 혼란이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조효진, 유성경, 2022; Frankl, 1963; Steger et al., 2008). 그러므로 의미추구형 집단에서의 높은 진로스트레스가 단순한 진로 탐색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수준에서의 내적 혼란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높은 의미실현형은 진로스트레스 전반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삶의 의미가 명확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결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나 취업의 어려움 등과 같은 외부 영향을 덜 받는다. 이는 박은주와 금명자(2012)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낮은 의미결여형에서도 진로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보다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회피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불안을 느낄 만큼의 자기내적 탐색이나 압박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진로와 같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도 무기력하거나 회피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Frankl, 1963). 따라서 이 집단의 낮은 진로스트레스 수준은 안정적인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 진로 발달 과정에 대한 내적 동기의 결여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조효진과 유성경(2022)의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이 진로와 삶에 대한 태도가 수동적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형성과 진로 발달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특히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조화로운 형성이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진로 정보 제공이나 행동계획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강화하는 심리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도출된 네 개의 잠재집단 간 진로성숙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높은 의미실현형이 진로성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삶의 의미가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삶의 의미가 진로정체감 형성, 진로목표의 명료성 및 진로 결정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권용준, 이종연, 2017; 송은정, 1999; 조은혜 외, 2012).

의미실현형은 삶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 진로에 대해 보다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서 제시하는 내적 동기의 효과와도 일치하는데, 개인이 내면화한 삶의 의미는 진로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에서도 개인의 자아개념과 가치가 진로 선택과 진로 성숙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간의 특성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미추구는 높지만 의미발견이 낮은 의미추구형은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결정성과 목적성, 확신성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은 활발하지만 아직 그 의미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서 진로 결정에 필요한 자기효능감이나 명료성이 부족한 상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의미추구형은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 의지는 있으나 진로 발달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계획보다는 먼저 삶의 가치, 목적,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의미 형성을 지원하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낮은 의미결여형은 진로성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준비성과 독립성 하위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로 행동을 위한 내적 동기가 결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을 때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은주와 금명자(2012)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낮은 학생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대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송은정(1999)은 삶의 목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애초에 관심이나 동기 자체가 낮은 무관심 또는 탈동기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 상담에 있어 구체적인 행동 제시보다 먼저 삶의 의미를 자각시키고 내면의 동기를 유발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도출된 잠재집단 간 진

로성속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의미실현형은 진로성속도의 하위요인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삶의 의미가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의미추구형은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속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수준이 진로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미추구,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낮은 의미결여형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의식, 의미를 찾으려는 내적 동기가 낮은 상태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주도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Frankl(1963)은 이러한 상태에서 무기력과 우울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낮은 대학생은 자살 사고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Hwang et al., 2024). 이에 따라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내담자의 내재된 가치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상담 기법으로, 자기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박예진과 이성규(2022)의 메타분석에서는 동기강화상담이 대학생의 자기조절력과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lankenship(2024)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 동기강화상담 파일럿 연구를 통해, 동기강화상담이 자기결정성 이론과 결합될 때 내재적 동기 및 목표 성취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Hwang 등(2024)은 극심한 경쟁과 안정된

직업에 대한 압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실존적 목적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동기 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동기강화기법과 실존치료를 통합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우울 감소와 삶의 의미추구, 의미발견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또한 이러한 개입은 낮은 학업 성취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자살 사고와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기결정성, 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 등 자기주도적 심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동기강화상담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의미추구 수준은 높지만 의미발견 수준이 낮은 의미추구형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갈망은 크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로 실존적 불안과 혼란, 심리적 불안정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는 개인의 고통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개인 고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다. 실제로 Robotmili 등(2015)이 이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로고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삶의 의미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우울 수준은 감소되었으며, 그 효과가 1개월 이후에도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un 등(2022)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로고테라피를 진행한 결과 삶의 의미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우울, 자살 사고가 감소하였으며, Aiello-Puchol과 Garcia-Alandete(2025)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로고테라피 및 의미중심치료가 삶의 의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로고테라피가 삶의 의미형성과 정서 회복을 돕는 것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중간 정도인 의미과도기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의 의미 수준을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나 장기

목표가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일상적 불안 요소들로 인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용전념치료(ACT)가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가치 명료화 과정을 통해 모호하게 느끼는 삶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전념적 행동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심리적 유연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변화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박세란, 이훈진, 2012; 최세라, 2024; Hayes et al., 2011). Pirfalak 등(2024)은 자살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8주간 수용전념치료를 적용하여 삶의 의미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보고했으며, 이를 가치 명료화 및 전념 행동 증진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Fledderus 등(2012)은 스트레스 취약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ACT 프로그램에서 삶의 의미와 긍정정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Gloster 등(2020)의 메타분석은 ACT가 다양한 임상군에서 삶의 가치 구현과 자기통합을 돕는 치료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ACT가 삶의 의미와 관련된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하고, 현재 삶을 가치 지향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개입임을 시사한다.

넷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높은 의미실현형은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진로방향성이 뚜렷한 상태로, 이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진로 실현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 기반한 진로코칭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 충족이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고 보며, 진로코칭은 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 설정, 실천 계획, 사회적 지지망 활용 등을 지원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 대상 코칭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삶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인 진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임정섭 외, 2013). 또한 Otu(2024)는 목적 기반 진로코칭

을 통해 삶의 목적 명료화와 진로 결정 어려움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Napier 등(2025)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온라인 개입 프로그램이 성인 초기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 심리욕구 충족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결정성 기반 코칭은 의미실현형 집단이 지닌 내면의 의미를 지속적인 진로 행동과 자기설계로 확장시키는 데 유효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대학생을 분류하고 각 잠재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개입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진로 상담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진로 상담 현장에서의 실천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나, 학년, 전공, 종교 등의 분포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같은 사람 중심 접근법인 경우 표본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이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집단 샘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대에 따라 삶의 의미 집단 구성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이승화와 민경화(201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집단의 의미추구는 낮고 의미발견은 높은 ‘개별화가 낮은 만족형’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낮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이면서도 높은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삶의 의미 집단

이 다르게 구성되고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경기 침체,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진로문제가 더 이상 대학생이나 성인 초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연령 범위를 포함하여 삶의 의미와 진로 발달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삶의 의미와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응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삶의 의미 잠재집단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어떠한 인과적 방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실험설계를 통해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삶의 의미가 진로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람 중심 접근법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삶의 의미를 단일 차원으로 여기거나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각각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 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 수준과 하위차

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로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삶의 의미와 진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상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삶의 의미의 하위차원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 수준과 유형에 따라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데 차별화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문진. (2017).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강인혜, 유금란.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21-42.
- 고영남. (2021). 청소년의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34(1), 1-23.
- 고주희, 송현주. (2015). 자기성찰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2(2), 245-268.
- 권대훈.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삶의 의미,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고원교육연구**, 34(1), 1-24.
- 권용준, 이종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127-148.
- 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 김봉수. (2020).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국제법무**, 12(2), 55-90.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소연, 정희숙. (2015). 한 중년여성의 진로구성 과정. **한국콘텐츠학회**, **15**(5), 265-282.
- 김송화. (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와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연중, 손은령. (2012).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차원적 진로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3**(5), 2443-2461.
- 김영석, 이상희. (2016). 대학생의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4), 673-689.
- 김영인, 노경주, 정철영. (2008). **청소년 진로 및 학업지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영희, 고태순. (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존감,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263-275.
- 김택호. (2004). 청소년의 탄력성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5**(3), 743-772.
- 김혜영, 김민정. (2024).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과 삶의 의미의 순차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9**(3), 623-644.
- 민여준. (2015). **집단 분류의 통계적 방법 비교: 군집분석, 판별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근희. (2004). **한국 중년남성의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

**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박세란, 이훈진. (2012). ACT 기반 가치탐색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인지행동치료, 12(1), 1-20.**

박예진, 이성규. (2022). 동기강화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329-353.**

박은선, 박지아. (2013).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9(1), 267-299.**

박은주, 금명자. (2012).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교육연구, 7(2), 37-55.**

박채연. (201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慈悲)의 매개 효과. **한국명상학회지, 9(1), 35-55.**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성숙의 예측: 진로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서희정, 윤명희. (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17-134.**

송은정. (1999). **자아개념과 삶의 의미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미성, 이희경. (2016). 스트레스 완충자원으로서 삶의 의미의 역할, **社會科學研究, 32.**

- 심은숙. (2003).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학과 만족도 및 학과인기도에 따른 진로성숙수준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안영미. (2003).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정신간호학회, 12**(4), 576-585.
- 양준영, 이보라. (2020). 삶의 의미 하위 차원 간 군집분석에 따른 진로관여행동 및 진로장벽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767-787.
- 오미진, 김봉환. (202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 연구, 29**(3), 180-203.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 이기학, 한중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나경, 안권순. (2015). 삶과 과제 의의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727-753.
- 이나경, 안권순. (2016). 삶의 의미가 대학생의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71-399.

- 이덕희, 이동훈, 정하영, 남슬기. (202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계층 도출과 영향요인 검증: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153-1177.
- 이수정. (2015).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수진, 김하나, 김봉환. (2021). 대학생 진로미결정 관련변인에 대한 국내 연구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1**(2), 59-80.
- 이승화, 민경화. (2015). 중년기 삶의 의미 유형에 따른 분류 및 특성. **상담학연구**, **16**(5), 399-415.
-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온라인 조사의 응답오차에 대한 연구: 설문 응답 시간과 응답 성실성의 관계. **한국조사연구학회**, **9**(2), 51-83.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주영. (2010). **초기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공존 발달: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지선. (2010).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형국. (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특수대학원.

- 임정섭, 최영임, 김교헌. (2013). 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 사고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429-451.
- 장광원, 장성화. (2012).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3(2), 59-79.
- 장문희. (1995). **자아개념과 삶의 목적수준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직업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 정미란. (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8, 64-93.
- 정미연. (2013). **삶의 의미 영향 요인: 성인과 노인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미영. (2009). 삶의 의미 발견 과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203-228.
- 정유정. (2017).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09-1321.
- 정주리. (2007).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명현. (2021).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과업스트레스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2), 227-295.
- 조성연, 이선순. (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조은향 (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에 따른 진로성숙도: 긍정정서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5), 2049-2065.
- 조태영, 이민순. (2009). 항공 운항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차이연구. **한국항공경영학지**. 7(1), 69-86.
- 조효진, 유성경. (2022).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중단적 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35-62.
- 진춘화, 장준호. (2019).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109-115.
- 최세라. (2024). REBT와 ACT의 상담이론 비교. **한국REBT인지행동치료**, 4(1), 42-65.
- 허지연, 손은정. (2009).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28(2), 105-128.
- 황성원. (2017).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동**

**기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황윤미. (1992). **인생목적 수준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황은비, 김향숙. (2016). 군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403-429.

Aftab, A., Lee, E. E., Klaus, F., Daly, R., Wu, T. C., Tu, X., ... & Jeste, D. V. (2019). Meaning in life and its relationship with physical, mental, and cognitive functioning: a study of 1,042 community-dwelling adults across the lifespan.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81*(1), 11357.

Aiello-Puchol, A., & García-Alandete, J. (2025). A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s of logotherapy and meaning-centered therapy on psychological and existential symptoms in women with breast and gynecological cancer. *Supportive Care in Cancer*, *33*(6), 1-13.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Al-Mahrouqi, T., Chan, M. F., Al-Mukhaini, M., Al Shehi, M., Al-Huseini, S., Jahan, F., Al Balushi, N., Panchatcharam, S. M., & Al Alawi, M. (2023). The differential mediating role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ful living and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cientific Reports*, *13*(1), 11671.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4), 409-427.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1*, 608–618.
- Bengtson, V. L., & Birren, J. E. (1988). *Emergent theories of aging*. Springer. 214–246.
- Blankenship, B. B. (2024). Motivational interviewing to support the goals of college students. *Student Success, 15*(1), 99–104.
- Boulter, L. T. (2002). Self-concept as a predictor of college freshman academic adjustment. *College Student Journal, 36*(2), 234–246.
- Chamberlain, K., & Zika, S. (1988). Measuring meaning in life: An examination of three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3), 589–596.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TB/McGraw-Hill.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s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00–207.
- Davis, C. G., & Nolen-Hoeksema, S. (2001). Loss and meaning: How do people make sense of los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726–741.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 correct?. *Death Studies*, 24(6), 497–540.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3), 359–375.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enum.
- Dezutter, J., Waterman, A. S., Schwartz, S. J., Luyckx, K., Beyers, W., Meca, A., ... & Caraway, S. J. (2014). *Journal of personality*, 82(1), 57–68.
- Dik, B. J., & Steger, M. F. (2008). Randomized trial of a calling-infused career workshop incorporating counselor self-disclos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2), 203–21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Fledderus, M., Bohlmeijer, E. T., Pieterse, M. E., & Schreurs, K. M. G. (2012).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s guided self-help for psychological distress and positive mental heal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sychological medicine*, 42(3), 485–495.
-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Beacon press.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NY: Pocket Books.

- Gloster, A. T., Walder, N., Levin, M. E., Twohig, M. P., & Karekla, M. (2020). The empirical statu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 review of meta-analyses.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18*, 181–192.
- Gori, A., Topino, E., Svicher, A., & Di Fabio, A. (2022). Towards meaning in life: A path analysis exploring the mediation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associations of self-esteem with presence of meaning and search for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9), 11901.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Eds.).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2011).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he process and practice of mindful change*. Guilford press.
- He, W., Wang, X., Wu, H., & Steger, M. F. (2023).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4*, 104371.
- Hix-Small, H., Duncan, T. E., Duncan, S. C., & Okut, H. (2004). A multivariate associative finite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examining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255–270.
- Hwang, B., Ju, H.-J., Jang, S., & Shin, S. M. (2024).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Existential Psychotherapy Program for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37(8), 664-684.

Iwamoto, D. K., Corbin, W., & Fromme, K. (2010).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ddiction*, 105(11), 1912-1920.

Kiang, L., & Witkow, M. R. (2015). Normative changes in meaning in life and links to adjustment in adolescents from Asian American background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2), 164-173.

Klinger, E. (1998). The search for meaning in evolutionary perspective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1-11.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3), 245-254.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 Graw-Hill.

Malmberg, M., Kleinjan, M., Vermulst, A. A., Overbeek, G., Monshouwer, K., Lammers, J., & Engels, R. C. (2012). Do substance use risk personality dimensions predict the onset of

- substance use in early adolescence? A variable- and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512–1525.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cIntosh, D. N., Silver, R.,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812–821.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106–109.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6). Mplus user's guide (Version 4.1). *Los Angeles, CA: Author*.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apier, A. D., Slemp, G. R., & Vella-Brodrick, D. A. (2025). Life Crafting: Pilot-Testing an Online,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Intervention for Emergi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ositive Psychology*, *10*(2), 32.

- Otu, M. S. (2024). Effect of purpose-based career coaching on career decision-making. *Current Psychology, 43*(31), 25568–25594
- Pirfalak, M., Atashpour, S. H., & Golparvar, M. (2024). The effectivenes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the meaning of life and psychological capital of male students with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linical Research in Paramedical Sciences, 13*(1).
- Rahman, A. F., Manatunga, A., Guo, Y., Peng, L., Warnock, M., Ressler, K. J., & Jovanovic, T. (2018). A latent class analysis of PTSD symptoms among inner city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98*, 1–8.
- Reker, G. T., & Wong, P. T.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 Robotmili, S., Sohrabi, F., Shahrak, M. A., Talepasand, S., Nokani, M., & Hasani, M. (2015). The effect of group logotherapy on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levels of Irania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7*, 54–62.
- Rosellini, A. J., Coffey, S. F., Tracy, M., & Galea, S. (2014). A person-centered analy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Predictors of latent class membership.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1), 16–2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Steger, M. F., Oishi, S., & Kesebir, S. (2011). Is a life without meaning satis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search for meaning in satisfaction with life judgment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3), 173–180.
- Sun, F. K., Chiu, N. M., Yao, Y., Wu, M. K., Hung, C. F., Chen, C. C., ... & Chiang, C. Y. (2022). The effects of logotherapy on meaning in life,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patients with depression: An intervention study.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8*(4), 1891–1899.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12.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Trevisan, D. A., Bass, E., Powell, K., & Eckerd, L. M. (2017). Meaning in life in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college

- counselor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0(1), 37–51.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11(89–106), 60.
- Von Eye, A., Bogat, G. A., & Rhodes, J. E. (2006). Variable-oriented and person-oriented perspectives of analysis: The example of alcohol consump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9(6), 981–1004.
- Wong, P. T. P. (1998).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BSTRACT

##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Meaning in Life Among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in Career Stress and Career Maturity**

NARI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wo subdimensions of meaning in life—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career stress and career maturity across these profile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conducted with 350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revealed four profiles: (1) the meaning-deficient type (low in both), (2) the meaning-seeking type (high in search, low in presence), (3) the meaning-transitional type (moderate in both), and (4) the meaning-realized type (high in both). A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psychological differences among these latent profiles, an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career stress and career maturity across these four latent profiles. The meaning-seeking type

exhibited the highest career stress, whereas the meaning-realized type showed the lowest. Regarding career maturity, the meaning-realized type demonstrated the highest level, while the meaning-seeking type showed the lowest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ning in lif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areer development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targeted intervention strategies in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Keywords: meaning in life,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career stress, career maturit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 부록

[부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부록 2] 삶의 의미 척도: MLQ

[부록 3] 진로스트레스 질문지

[부록 4] 진로성숙도 질문지

<부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다음은 당신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의 나이는? 만 (     )세

2. 당신의 성별은? (     )

- ① 남    ② 여

3. 당신은 대학교 몇 학년입니까? (     )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휴학생(    년 차)

4. 당신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① 인문계열    ② 경상계열    ③ 법학계열    ④ 사회과학계열    ⑤ 교육계열  
⑥ 공학계열    ⑦ 자연계열    ⑧ 의학계열    ⑨ 예체능계열  
⑩ 기타(해당 없음 포함)

5.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 ① 기독교    ② 가톨릭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6. 당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

- ① 소득    ② 안정성    ③ 적성과 흥미    ④ 사회적 기대  
⑤ 보람 및 자아성취    ⑥ 직업발전 및 장래성    ⑦ 가치관    ⑧기타(     )

<부록 2. 삶의 의미 척도: MLQ>

■ 다음은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잠시 떠올려 본 후, 질문을 읽고 적당한 번호에 V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대개 아니다	다소 아니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분명한 삶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6.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들을 늘 찾고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1	2	3	4	5	6	7
9. 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	1	2	3	4	5	6	7
10.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 <부록 3. 진로스트레스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1	2	3	4	5
2.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1	2	3	4	5
3.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1	2	3	4	5
4.	내 적성에 맞는 진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1	2	3	4	5
5.	취업 준비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1	2	3	4	5
6.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 불만이다.	1	2	3	4	5
7.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힘들다.	1	2	3	4	5
8.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1	2	3	4	5
9.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1	2	3	4	5
10.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1	2	3	4	5
11.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1	2	3	4	5
12.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1	2	3	4	5
14.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1	2	3	4	5
15.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1	2	3	4	5
16.	졸업 후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1	2	3	4	5
17.	진로 준비를 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막막하다.	1	2	3	4	5
18.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1	2	3	4	5
19.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1	2	3	4	5
20.	선택한 직업에 안주하게 될까 봐 두렵다.	1	2	3	4	5
21.	진로에 대비하여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1	2	3	4	5
22.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지, 불안정하지만 도전적인 진로를 선택할지가 고민된다.	1	2	3	4	5
23.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1	2	3	4	5
24.	다양한 길이 아닌 한 가지 진로를 정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1	2	3	4	5
25.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1	2	3	4	5

#### <부록 4. 진로성숙도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현재 본인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1	2	3	4	5
2.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	2	3	4	5
5.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1	2	3	4	5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	2	3	4	5
8.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	2	3	4	5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11.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12.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3.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5.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6.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1	2	3	4	5
17.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18.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9.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21.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기존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만큼 잘 할 자신이 없다.	1	2	3	4	5
22.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4.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 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25.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27.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28.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1	2	3	4	5
29.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1	2	3	4	5
3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32.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33.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1	2	3	4	5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1	2	3	4	5
35.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1	2	3	4	5
36.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37.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1	2	3	4	5
38.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기 원한다.	1	2	3	4	5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그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40.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41.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 하는 직업을 선택 할 것이다.	1	2	3	4	5
42.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43.	나는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44.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4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47.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1	2	3	4	5